한국심리학회지 : 건 강 2013년 12월 제18권 제4호 (연 4회 발간)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인 : 이 민 규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인쇄일 : 2013년 12월 30일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 집 위 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8, No. 4. **Decem. 2013.**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www.kci.go.kr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 강

제 18 권 제 4 호

[개관논문]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효과 개관 ····· Chad Ebesutani · 김 미 리 혜 / 589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가 정서조절곤란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허 예 슬 · 손 정 락 / 603

마음챙김과 수용 중심 프로그램이 몰두형 애착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 석 정 민 · 손 정 락 / 627

명상기반 개입법에서 정적명상과 동적명상의 차별적 효과 ····· 김 완 석 / 643

긍정 심리치료가 우울경향이 있는 청소년의 행복감, 낙관성, 무망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유 은 영 · 손 정 락 / 669

직접적 · 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주 정 현 · 정 경 미 / 687

한국형 성인용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 최 훈 석 · 용 정 순 · 김 교 헌 / 709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 박 지 선 / 727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 심 미 영 · 엄 진 섭 · 이 선 희 · 김 교 헌 / 747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 한 수 연 · 정 구 철 / 763

수면과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가?
····· 심 태 경 · 이 민 규 / 783

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 윤 진 아 · 송 원 영 / 80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 김 정 희 · 안 귀 여 루 / 82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서 경 현 · 신 현 진 · 양 승 애 / 837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와 빚짐에 미치는 영향 ····· 김 미 현 · 현 명 호 / 853

www.kci.go.kr

[Brief Report]

아동 및 청소년 암환자와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민감도와
통증-공포 연합강도 간 상관 비교
…… 민 해 원 · 고 영 건 · 유 은 승 · 박 병 규 · 박 현 진 · 김 종 흔 / 869

자아존중감과 마음챙김의 관계 …… 박 상 규 / 881

섭식행동에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 …… 이 민 규 / 89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4, 763 - 781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 수 연　　정 구 철‡
삼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와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적 지원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인 남성 수형자 150명과 법적 처벌 경험이 없는 성인 남성 일반인 150명이었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이 수형자보다 유의하게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수형자와 일반인 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없었으나,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일반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수형자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범죄자로 분류될 확률(Odds ratio)이 2.04배 높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범죄자로 분류될 확률이 3.40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형자들은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수형자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강한 상관관계와 일반인과 수형자 간 차이를 고려하여, 출소 후 적절한 사회복귀에 회복탄력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수형자

† 이 논문은 한수연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가 포함되었으며, 삼육대학교의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구철,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02-3399-1678, E-mail: gcjeong@syu.ac.kr

www.kci.go.kr

행복 강박증이라는 용어가 나타날 만큼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각종 질병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 및 심화된 경쟁구도 속에서 이제 인간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인 행복까지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복을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하였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Ryff(1989)는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순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신이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평가 기준이나 삶의 목표, 성장의 정도, 자아 수용이나 실현과 같은 개인의 효과적인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행복을 정의하였다.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이 안녕감(Well-being)에 관한 연구들이 넘쳐나고 있으며(Clarke, Marshall, Ryff, & Rosenthal, 2000; Diener & Suh, 1997; Fava, 1999; Keyes, 2000; Ryff & Singer, 1996), 다양한 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Ryan과 Deci(2001)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전통적으로 안녕감이 행복(happiness; hedonic well-being)을 다루거나, 인간의 가능성(human potential; eudaimonic well-benig)을 다루는 연구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여(Keyes, Shmotkin, & Ryff, 2002),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곧 행복에 관한 연구로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cGregor & Little, 1998).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면모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범죄자는 2006년 약 170만 명에서 2007년 약 183만 명, 2008년 약 206만 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약 202만 명 등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2010년 약 178만 명, 2011년 약 175만 명으로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범죄율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2011).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출소 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재범자의 약 54%가 출소 후 3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이기에 수형자들의 출소 후 적응에 관한 문제는 이제 출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해야한다(통계청, 2011).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은 그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교화과정에 투입된 사회적 자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은 사회적 안전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줄여할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영신(2009)은 범죄자들이 출소 후 겪게 되는 주요 문제들로 음식, 거주지, 재정적 지원의 합법적 출처와 같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의 결핍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지역사회와의 통합 등 심리·사회적 요소들을 들고 있다. 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사회집단의 이동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Smider, Essex, & Ryff, 1996), 수형자들이 출소 후 봉착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심리적 보호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다(이옥형, 2012; Alim, Feder, Graves, Wang, Weaver, Westphal et al.,

www.kci.go.kr

2008; Cooke, Doust, & Steele, 2013; Ming, Chao, Xiao, Jiang, Yan, & Qinglin, 2012; Ryff, 1989).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김주환, 2011), 단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심리적 안녕감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최근의 수형자들은 가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나 단순히 물질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부적응과 경쟁적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국가통계포털에 고시된 수형자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미상과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6.1%), 다음으로 부주의가 13.2%, 이욕(생활비, 유흥비, 도박비 등)이 8.7%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이는 범죄의 발생에 충동조절이나 주의력 결핍, 다양한 심리적 욕구들이 중요한 원인이 됨을 시사한다.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이를 극복해내는 힘인 회복탄력성(김주환, 2011)은 출소 후 급격히 변화된 환경 자극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작용하므로, 출소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소자들의 재복역과 관련하여 조윤오(2012)가 2005년에 출소한 30,224명의 출소자를 2011년에 다시 역추적하여 재복역 횟수를 확인한 후 재복역률에 미치는 교도소 교정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정프로그램 중 상담경험이 재복역횟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화상담을 경험할수록 재복역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상담의 질과 양을 적절히 수량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상담경험 유무로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와 상담이라는 의미가 전문적 상담이 아닌 고충처리와 같은 면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재복역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현재 교도소 내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전문화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 부주의 등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수형자들의 심리적 특성 강화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자이므로 주로 우울(이규휘, 이봉건, 2012), 충동성 및 공격성(서혜석, 2008; 성상율, 최태영, 이종훈, 2012), 반사회성(김종수, 2008), 약물중독(강선경, 2003) 등 부정적인 요인을 연구한 사례가 많다. 수형자에게서 반사회성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부정적 자극에 대해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형자들의 복역기간 중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강화는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와 재범률의 감소 등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개념은 국내에서 '극복력'(김동희, 유일영, 2010), '회복력'(김혜성, 1998), '복원력'(오승아, 이양희, 1999), '탄력성'(홍

www.kci.go.kr

은숙, 2006), ‘적응유연성’(남경아, 임지영, 송희영, 2006), ‘회복탄력성’(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resilience’란 단어는 원래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던 용어로, 늘어져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튕겨 오르거나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를 심리학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홍은숙, 2006). 여러 학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 받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에 유능감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 ‘내적·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Waters & Sroufe, 1983),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김주환, 2011) 등이 있다. 회복이나 극복, 복원, 적응과 같은 단어는 원 상태로의 회귀와 유지는 설명할 수 있으나 성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회복과 성장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으로 번안하였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개발한 Reivich와 Shatté(2003)는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로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낙관성,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서조절력과 충동통제력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두 도전적인 상황이나 역경의 장면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직장에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arker & Acher, 1987; Logue, 1995). 원인분석력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인이다. 낙관성은 나의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이며, 희망과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낙관론과는 달리 건강한 현실적 감각도 가지고 있다(Fontaine, Manstead, & Wagner, 1993).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대인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개선시킨다. 자기효능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적극적 도전성은 새로운 도전과 관계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더 큰 만족과 성공을 가져오는 영역이다. 이러한 하위영역들로 구성된 회복탄력성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수형자들의 삶과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사회와,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는 복잡한 경쟁구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역경의 정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하는 수형자들은 더욱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출소 후에 기다리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출소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적응하기 힘든 사회를 비난하기 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 새로운 기

www.kci.go.kr

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도약하려고 노력하게 한다. 중국 사천성의 대지진 후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신경증, 낙관성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Ming, Chao, Xiao, Jiang, & Yan, 2012),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데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복탄력성의 강화는 출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강건함을 회복해 주어, 우발적 범행을 줄이고 정서를 조절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고,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작용하여 수형자들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에 대해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WHO, 1948), 여기서 등장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well-being'을 국내에서는 주로 안녕감 혹은 원어 그대로 웰빙이라고 번안하여 연구하고 있다(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박기환, 서민재, 2013; 원두리, 김교헌, 2006).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Ryan과 Deci(2001)는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에 대한 정서적 지표와 삶의 만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삶에 대한 정서반응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그러나 Ryff(1989)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려는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단지 행복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Neugarten의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s) 등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율성(autonomy),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자아수용(self acceptance), 환경 통제(Environmental mastery)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을 개념화하였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에서 재인용).

Keyes, Shmokin과 Ryff(2002)는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안녕감 척도들의 관계에 대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두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2개의 요인으로 제약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적절히 부하되었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과 환경통제,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두 요인 모두에 .40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들을 측정변수로 하여 각각 잠재변수를 구성한 후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84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밀접한

www.kci.go.kr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연구에서도 두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차경호, 1999), Keyes, Shmokin 및 Ryff(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Keyes, Shmokin 및 Ryff(2002)의 연구와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연구는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6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행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의 6개 요인구조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일치하게 내리고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Ryff, 1989), 자율성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적으로 자기결정 및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행동 통제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므로 출소자들의 재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의미하며,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의미하며, 개인 성장은 그 자신의 특성을 성취하는 것과 더불어 잠재력의 계발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아수용은 정신건강과 자아실현에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현재와 과거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환경 통제력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적당하게 환경을 선택하고 복잡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이형룡, 강윤지, 권기준, 2009),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박지현, 이명조, 2012; 서우경, 김도연, 2013), 우울 및 경계선 성격장애(박세란, 이훈진, 2013), 공격성(박기환, 서민재, 2013), 낙관성(김경민, 임정하, 2012), 가족기능(조호운, 김영희, 2011) 등 다양한 심리적 혹은 사회적 변인들과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특히 수형자들이 사회 복귀 후 당면하게 되는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등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배임호(2008)가 교정시설 내 종교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24명의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연구하기는 했으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등 구체적 설명이 없고, 주로 신앙 및 영적 안녕감에 대한 실험연구였다.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수형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조사과정이 복잡하여 연구의 수행이 적은 편이다.

해마다 2만5천 명에서 3만 명의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최영신, 2009),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수형자들의 특성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이를 극복해내는 힘인 회복탄력성과,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체의 행복 및 만족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안녕감은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난이나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수감기간 동안 증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www.kci.go.kr

경험하는 일이 교도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와 차이를 조사하여 회복탄력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추후 수형자를 위한 교정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계획에 회복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인 남성 수형자 150명과 법적조치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없는 일반인 남성 15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16명(10.7%), 30대가 33명(22.0%), 40대가 48명(32.0%) 그리고 50대 이상이 53명(35.2%)이었으며, 기혼자가 102명(68.0%), 미혼자가 48명(32.0%)이었다.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9명(59.3%)이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42명(28.0%), 천주교 21명(14.0%), 불교 24명(16.0%), 기타종교가 2명(1.3%)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1명(40.7%)이었다.

수형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11명(7.3%), 30대가 36명(24.0%), 40대가 47명(31.3%) 그리고 50대 이상이 56명(37.3%)이었으며, 기혼자가 105명(70.0%)이었고,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23명(82.0%)이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63명(42.0%), 천주교 24명(16.0%), 불교 34명(22.7%), 기타종교가 2명(1.3%)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명(18.0%)이었다.

수형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경범죄가 35명(23.3%), 횡령과 배임 등 재산범죄 67명(44.7%), 성범죄 14명(9.3%) 그리고 강력범죄가 34명(22.7%)이었다. 수감 전 직업은 자영업이 57명(38.0%), 사무/관리직이 35명(23.3%), 단순노무직이 23명(15.3%), 그리고 무직자가 25명(6.7%)이었다. 범죄횟수는 1회가 90명(60.0%), 2회가 32명(21.3%), 3회가 9명(6.0%), 4회 이상이 19명(12.7%)이었다.

수형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의 일개 교도소의 소장에게 협조를 받아 현지 교도관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교도관에게 설문 조사 시 수형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언제든지 설문지 응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도록 교육하였다. 일반인들은 연구자가 직접 직장인들과 자영업자에게 배포하였고, 또한 아파트 부녀회의 가정주부들을 통해 남편에게 설문지를 응답해 오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조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의 응답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조사하였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회복탄력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Reivich와 Shatté(2003)가 개발한 Resilience Quotient Test(RQT)를 김주환(201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6문항으로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www.kci.go.kr

의 7개 하위요인으로 각각 8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54문항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46문항으로 선별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S는 총 46문항으로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8문항), 삶의 목적(7문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인과 수형자 집단 간의 차이는 t 검정을 수행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범죄 유무에 주요 연구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 과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60, p<.001, 수형자의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었다, r=.75, p<.001.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총점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일반인과 수형자간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일반인과 수형자 간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일반인이 수형자보다 회복탄력성(t(298)=6.038, p<.001)과 심리적 안녕감(t(298)=7.218, p<.001)에서 모두 유의하게

www.kci.go.kr

표 1.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행렬 (*N*= 300)

변인	집단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회복탄력성	일반인	.60***	.40***	.47***	.29***	.43***	.52***	.31***
	수형자	.75***	.40***	.52***	.60***	.59***	.72***	.62***
정서조절력	일반인	.47***	.43***	.27**	.28**	.37***	.31***	.18*
	수형자	.55***	.32***	.39***	.45***	.47***	.50***	.39***
충동통제력	일반인	.31***	.19*	.17*	.18*	.29***	.23**	.19*
	수형자	.61***	.30***	.41***	.45****	.45***	.61***	.59***
낙관성	일반인	.37***	.27**	.28**	.08	.23**	.36***	.29***
	수형자	.57***	.35***	.42***	.43***	.45***	.51***	.44***
원인분석력	일반인	.48***	.32***	.31***	.34***	.44***	.39***	.12
	수형자	.64***	.42***	.41***	.53***	.49***	.58***	.48***
공감능력	일반인	.40***	.23**	.37***	.23**	.24**	.37***	.17
	수형자	.53***	.33***	.39***	.38***	.39***	.51***	.41***
자기효능감	일반인	.37***	.23**	.40***	.13	.21**	.31***	.19
	수형자	.69***	.32***	.49***	.55***	.60***	.66***	.56***
적극적 도전성	일반인	.30***	.11	.33***	.07	.14	.36***	.26**
	수형자	.49***	.13	.33***	.48***	.34***	.53***	.49***

*p<.05, **p<.01, ***p<.001.

표 2. 일반인과 수형자 간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300)

변인	일반인(*n*=150)	수형자(*n*=150)	전체(*N*=300)	
	M(SD)	*M(SD)*	*M(SD)*	*t*
회복탄력성	205.48(10.08)	196.46(15.27)	200.97(13.68)	6.038***
정서조절력	29.79(2.29)	28.55(3.25)	29.17(2.87)	3.821***
충동통제력	29.18(2.19)	28.46(2.72)	28.82(2.49)	2.528*
낙관성	28.87(2.16)	27.57(2.80)	28.22(2.58)	4.507***
원인분석력	29.33(2.30)	28.60(2.53)	28.97(2.44)	2.626***
공감능력	30.35(2.36)	27.49(2.62)	28.92(2.87)	9.959***
자기효능감	29.51(2.16)	28.17(3.21)	28.84(2.81)	4.222***
적극적 도전성	28.45(2.17)	27.62(2.53)	28.03(2.39)	3.040*
심리적 안녕감	167.29(9.45)	158.15(12.30)	162.72(11.87)	7.218***
자아수용	28.84(3.10)	25.45(3.25)	27.14(3.59)	9.263***
긍정적 대인관계	26.69(2.42)	25.13(2.28)	25.91(2.47)	5.728***
자율성	27.42(2.35)	26.59(2.87)	27.00(2.65)	2.751**
환경통제력	29.29(2.14)	27.38(2.75)	28.34(2.64)	6.719***
삶의 목적	26.08(2.09)	25.43(2.61)	25.76(2.38)	2.371*
개인적 성장	28.97(1.99)	28.17(2.51)	28.57(2.30)	3.056**

*p<.05, **p<.01, ***p<.001.

www.kci.go.kr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력($t(298)$= 3.821, $p<.001$), 충동통제력($t(298)$=2.528, $p<.05$), 낙관성($t(298)$=4.507, $p<.001$), 원인분석력($t(298)$ =2.626, $p<.01$), 공감능력($t(298)$=9.959, $p<.001$), 자기효능감($t(298)$=4.222, $p<.001$), 적극적 도전성($t(298)$=3.040, $p<.05$)에서 모두 일반인이 수형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자아수용(t(298)=9.263, $p<.001$), 긍정적 대인관계($t(298)$=5.728, $p<.001$), 자율성($t(298)$=2.751, $p<.01$), 환경통제력($t(298)$= 6.719, $p<.001$), 삶의 목적($t(298)$=2.371, $p<.05$), 개인적 성장($t(298)$=3.056, $p<.01$)에서도 모두 일반인이 수형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일반인과 수형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 300)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일반인(n=150)		수형자(n=150)		일반인(n=150)		수형자(n=150)	
일반적 특성	*M(SD)*	*F*	*M(SD)*	*F*	*M(SD)*	*F*	*M(SD)*	*F*
연령대								
20대[a]	203.31(7.64)	.590	191.18(9.68)	10.052***	164.56(7.24)	1.063	158.27(12.90)	7.392***
30대[b]	205.97(11.01)		190.22(13.31)	a,b,c<d†	169.39(9.10)		153.61(10.82)	b,c<d†
40대[c]	204.65(10.82)		192.87(15.85)		167.40(9.73)		154.94(12.72)	
50대 이상[d]	206.58(9.50)		204.52(13.55)		166.70(9.93)		163.73(10.75)	
결혼								
기혼	205.87(10.33)	.482	198.12(16.13)	4.245*	166.91(10.05)	.500	159.06(12.65)	1.930
미혼	204.65(9.57)		192.58(12.36)		168.08(8.06)		156.02(11.28)	
종교								
종교 유	206.58(10.28)	2.657	196.83(15.51)	.398	167.66(9.17)	.346	158.58(12.73)	.836
종교 무	203.87(9.64)		194.78(14.28)		166.74(9.89)		156.19(10.11)	
직업								
자영업[a]	204.30(9.41)	1.135	202.95(13.84)	5.885***	167.19(8.74)	.854	162.68(11.06)	5.464***
사무/관리직[b]	205.84(9.70)		192.43(16.66)	a>b,c†	167.34(9.29)		155.49(13.73)	a>c†
단순노무직[c]	200.58(7.44)		187.48(9.95)		166.42(7.66)		150.96(7.47)	
무직[d]	205.54(10.45)		196.90(17.31)		163.38(8.50)		153.20(12.40)	
기타[e]	207.32(11.55)		195.40(14.23)		168.92(10.95)		160.12(12.45)	
범죄 유형								
경범죄[a]			193.11(15.35)	6.438***			156.94(13.73)	3.646*
재산범죄[b]			201.75(14.97)	a,d<b†			161.39(11.53)	b>d†
성범죄[c]			197.14(14.63)				157.50(11.98)	
강력범죄[d]			189.21(12.44)				153.26(10.89)	
범죄횟수								
초범			200.42(14.88)	16.748***			160.80(11.59)	11.187**
2회 이상			190.52(13.97)				154.17(12.36)	

*$p<.05$, **$p<.01$, ***$p<.001$, †Scheffé test

www.kci.go.kr

일반인과 수형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반인과 수형자 간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경우 일반인들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형자는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F(3, 146)=10.052$, $p<.001$,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F(1, 148)=4.245$, $p<.05$, 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사무/관리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4, 145)=5.885$, $p<.001$. 범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재산범죄자들이 경범죄나 강력범죄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F(3, 146)=6.438$, $p<.01$, 범죄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초범보다 낮게 나타났다, $F(1, 148)=16.748$, $p<.001$.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형자의 경우 50대 이상 집단이 30대와 40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F(3, 146)=7.392$, $p<.001$, 자영업에 종사했던 수형자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수형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F(4, 145)=5.464$, $p<.001$, 재산범죄자들이 강력범죄자들보다 유의하게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F(3, 146)=3.646$, $p<.001$. 범죄횟수가 2회 이상인 집단이 초범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F(1, 148)=11.187$, $p<.01$.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효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항은 회복탄력성을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후 수형자와 일반인으로 코딩된 수용여부 변인과 곱하여 구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의 3단계에 투입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수용여부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4.9%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2=.149$, $F(2, 297)=52.102$, $p<.001$, 수용여부와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24.1%가 증가한 39.0%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2=.390$, $F(2, 297)=94.880$, $p<.001$, 수용여부($b=-2.64$, $p<.001$)와

표 4.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 분석결과 ($N=300$)

단계 / 변인(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VIF
상수	162.72		162.02		162.80		
수형자(일반인)	-4.57***	-.39	-2.64***	-.25	-2.97***	-.25	1.13
회복탄력성(하위집단)			6.17***	.50	5.98***	.50	1.12
수형자×회복탄력성					2.42***	.19	1.02
$R^2(\Delta R^2)$	.149		.390(.241)		.427(.037)		
F	52.102***		94.880***		73.404***		

***$p<.001$.

www.kci.go.kr

회복탄력성(b=6.17, p<.001)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수용여부와 회복탄력성을 통제한 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42.7%로 1단계 모형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R^2=.427, F(3, 296)=73.404, p<.001, 상호작용항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b=2.42, p<.001.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수용여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투입된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2~1.1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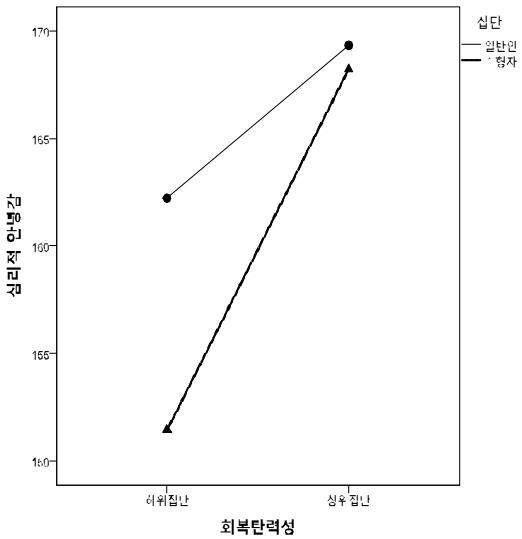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수용여부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

회복탄력성과 수용여부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수용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므로, 회복탄력성의 상·하위 집단 별로 일반인과 수형자 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사후 분석하였다(표 5). 회복탄력성 집단별 주효과 분석은 사후분석이므로 집단별 사후검정을 위한 오차값을 각 집단별 분석의 오차값을 사용하지 않고, 조절효과를 포함한 전체 분석의 오차값을 사용하여 F값을 재계산하여 차이를 검증하였고, 재계산된 F값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검증 결과 회복탄력성 상위 집단에서는 일반인과 수형자 간 심리적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1, 297)=.581, ns, 회복탄력성 하위 집단에서는 일반인이 수형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297)=41.430, p<.001.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범죄 유무 변인은 일반인(0)과 수형자(1)를 가변수로 코딩한 후,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6), 상수만을 포함한 기준 모형과 1단

표 5. 회복탄력성 상·하위 집단 별 일반인과 수형자 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N=300)

회복탄력성 집단	일반인	수형자	
	$M(SD)$	$M(SD)$	F
상위 집단(n=167)	169.33(9.37)	168.22(8.93)	.581
하위 집단(n=133)	162.21(7.62)	151.43(9.30)	41.430***

***p<.001.

www.kci.go.kr

계 모형 간 -2LL(Log Likelihood)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chi^2(2, N=300)= 49.161$, $p<.001$, 투입된 두 변수의 Wald값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량은 20.2%(Nagelkerke $R^2=.202$)였다.

회복탄력성의 상위 집단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이 범수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Odds Ratio: *OR*)은 2.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72$, $p<.05$, 심리적 안녕감의 상위 집단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이 범수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은 3.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1.22$, $p<.001$.

논 의

일반인과 수형자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계와 차이를 비교하고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인들의 경우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형자의 경우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50대 이상의 평균이 비로소 일반인들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 외에는 연령대별 차이가 없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나, 수형자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다르다. 취직과 결혼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등의 도전이 많은 20대와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어 행복감을 누려야할 30~40대에 수형자들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겨우 50대가 넘어서야 일반인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정서조절력이나 충동통제력과 같은 하위요인을 포함한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수형자들이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20대 수형자들이 50대 이상의 수형자들보다 유의하게 회복탄력성이 낮은 점은 20대에게 회복탄력성의 증진이 더욱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또한 범죄횟수가 2회 이상인 수형자들이 초범인 경우보다 회복탄력성이 낮았다는 점은 회복탄력성이 재범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은 전문적 상담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으나, 김석현 등(2009)이 수행한 교정상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전문적 상담이나 임상적 조치가 거의 없고 주로 고충처리 위주의 상담이어서 교정시설의 상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Jackson과 Watkin(2004)은 Reivich와 Shatté(2003)가 제시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7가지 기술을 소개하면서, 특히 'ABC사고'와 '생각의 덫(thinking trap)', '빙산 탐색(detecting iceberg)'의 세 가지 기술을 강조하였다. ABC 사

표 6.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범죄 유무에 미치는 영향 ($N=300$)

독립변수(참조)	*b*	Wald	*OR*	95%CI	Nagelkerke R^2
회복탄력성(상위)	.72	6.28*	2.05	1.17~3.59	.202
심리적 안녕감(상위)	1.22	18.49***	3.40	1.94~5.92	

*$p<.05$, ***$p<.001$.

www.kci.go.kr

고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 사고를 의미하며, 생각의 덫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결론으로 사고를 비약하는 것과 같은 사고의 오류를 인식하는 것이고, 빙산 탐색은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신념을 자각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른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수형자들의 부족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적 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을 상기 기술한 인지적 기술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정상담은 비전문적인 상담원이 단순한 고충처리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용생활의 적응과 출소 후 재범 방지까지 고려한다면 미국과 같이 훈련된 전임 상담자를 고용하여 전문적 상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수형자는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복탄력성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비해 수형자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약 2배 높았고, 심리적 안녕감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비해 3.4배나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범죄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기환과 서민재(201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공격 추동(drive)이 좌절의 대상자에게 향하지 못했을 때, 그 추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고한 대상을 향해 공격하는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전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수형자들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출소 후 심리적 안녕감은 공격성과도 관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옥형(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수형자들의 상관관계가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민수홍(2011)의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대한 연구에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신을 해하거나 동료 수형자들에게 속임수 및 완력을 행사하기 쉬울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충동통제력이나 정서조절력과 같은 하위요인을 포함한 회복탄력성의 증진은 수감 중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형자의 교도소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심리적 안녕감에 회복탄력성과 수용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일반인과 수형자 간 심리적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수형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은 충동통제력이나 정서조절, 원인분석력과 같은 정서 및 문제 대처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형자들의 공격성 조절과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돕는 일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www.kci.go.kr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과 수형자 모두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여성 수형자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수형자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일부 표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명소와 김혜원(2000)이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Ryff(1989)의 6개 하위요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 수형자의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나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옥형(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 남녀 모두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여성 수형자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여성 교도소는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 제약이 많으므로, 공공 기관 등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 과제 지원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수형자의 경우 1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단위의 무선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다양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형자들의 연령대별 분포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형자들의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지각하였으므로, 추후 수형자들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수형자들의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수형자들의 수감 중 행복과 출소 후 재범률 감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선경 (2003).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수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7-241.

김경민, 임정하 (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행복추구경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1), 89-101.

김동희, 유일영 (2010).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40(2), 236-246.

김명소, 김혜원 (2000).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차경호,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석현, 배준성, 창훈, 혀태균 (2009). 교정상담이 수형자의 적응과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2), 273-290.

김종수 (2008). 범죄청소년의 성격차원 성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268-277.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김혜성 (1998). 회복력(Resilience)개념 개발. 대학간호학회지, 28(2), 403-413.

남경아, 임지영, 송희영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2(2), 244-252.

www.kci.go.kr

민수홍 (2011).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 교도소화의 적용과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재해석. 형사정책연구, 22(2), 67-87.

박기환, 서민재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62.

박세란, 이훈진 (2013). 자존감, 자기자비와 심리적 부적응 및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23-139.

박지현, 이명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9.

배임호 (2008). 교정시설 내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1, 115-140.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69-186.

서우경, 김도연 (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서혜석 (2008). 교도소 수형자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38, 83-105.

성상율, 최태영, 이종훈 (2012). 한국인 청소년 수형자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도파민 수송체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8(1), 63-74.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오승아, 이양희 (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원두리, 김교헌 (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이규휘, 이봉건 (2012). 우울-반사회적 성향 수형자의 기질 및 정서특성과 자살생각. 사회과학연구, 29(1), 231-252.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이형룡, 강윤지, 권기준 (2009). 호텔직원들의 직장-가족 갈등, 가족-직장갈등,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18(6), 177-197.

조윤오 (2012).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재복역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4(4), 187-216.

조호운, 김영희 (201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43-165.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최영신 (2009).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20(1), 997-1018.

통계청 (2011).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www. kosis.kr 에서 검색.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Alim, T. N., Feder, A., Graves, R. E., Wang, Y., Weaver, J., Westphal, M., Alonso, A., Aigbogun, N., Smith, B. W., Doucette, J. T., Mellman, T. A., Lawson, W. B., Charney, D. S. (2008). Trauma, Resilience, and Recovery in a High-Risk African-American Popu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12), 1566-75.

Benard, B. (1993). Fostering resilience in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1*, 444-498.

Clarke, P. J., Marshall, V. W., Ryff, C. D., & Rosenthal, C. J. (2000). Well-Being in Canadian Seniors: Findings from the 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www.kci.go.kr

Canadian Journal on Aging, 19(2), 139-159.

Diener, E., & Suh, M. E. (1997). Subjective well-being and age: An international analysi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7,* 304-324.

Din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Fava, G. A. (1999). Well-being therapy: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8*, 171-179.

Fontaine, K. R., & Manstead, A. S. R., & Wagner, H. (1993). Optimism, perceived control over stres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4), 267-281.

Jackson, R., & Eatkin, C. (2004). The resilience inventory: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obstacles and determining happiness. *Selection & Development Review, 20*(6), 13-17.

Keyes, C. L. M. (2000). Subjectiv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for emotional well-being. *Motivation and Emotion, 24*(2), 67-84.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82*(6), 1007-1022.

Logue, A. W. (1995). *Self-control: waiting until tomorrow for what you want today.* Prentice-Hall, New Jersey.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McGregor, I.,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94-512.

Ming, L., Chao, L., Xiao, X., Jiang, Q., Yan, D., & Qinglin, Z. (2012).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Resilience Scale in Wenchuan earthquake survivors. *Comprehensive Psychiatry, 53*(5), 616-22.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Ryff, D.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 14-23.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Smider, N. A., Essex, M. J., & Ryff, C. D. (1996). Adaptation to community relocation: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sources and contextual factors. *Psychology and Aging, 11*, 362-371.

Waters & Sroufe, 1983. Social competence as a

www.kci.go.kr

developmental construct. *Dvelopmental Review, 3*(1), 79-97.

Werner, E. & Smith, R.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titution. In Basic documents. Geneva, Switzerland: Author.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7일
논문심사일: 2013년 6월 14일
게재결정일: 2013년 9월 18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4, 763 - 781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 Inmates and the General Public

Su-Yeon Han Goo-Churl Jeong
Sahmyook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fferenc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imprisoned inmates and the general public. Moreover, this research studies the psychological support to help inmates'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he target subjects include male adults(n=150) who are currently imprisoned in jail and male adults(n=150) who are of the general public and have not received any legal punishment b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inmate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icates that there are strong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variables for both the inmate and the general public group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silience and imprisonment is statically significant. The groups with high resilience do not show a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inmate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groups with low resilience indicate tha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inmates. The probability(odds ratio) to be classified as a criminal shows that the group with low resilience is 2.04 times higher than that with high resilience. Moreover, the group with a low psychological well-being has 3.40 times higher probability to be classified as a criminal than that with a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As these results indicate inmates with high resilience experience the sam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the general public hence, it is crucial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inmates. In light of both the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the inmates, the study discusse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resilience for the appropriate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fter the inmates are released from prison. Final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y are also suggested.

Keywords: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prisoner, inmate

www.kci.go.kr